

# 군산시 어업인 지원 눈길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 노후된 장비 교체 · 설치 어업경영 개선 ·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군산시가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및 노후된 장비 교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낚시어선의 인명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 절감장치, 저효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교체, 노후된 장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총사업비 2억7,000만원(국·도·시비 60%, 자부담 40%)으로 약 40명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5억2,000만원으로 158척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의 노후화된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하며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억7,200만원(도·시비 70%, 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약 45명의 어업인에게 레이더, GPS플로터, 그물인양기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0억5,000만원으로 289척을 지원했다.

또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1억500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 약 50명의 어업인에게 초단파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급출항단말기(V-PASS)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4억2,000만원으로 360척을 지원했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의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은 최대 승선인원을 10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설치를 해야하는 의무화 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 및 승객의 인명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7억1,100만원(도·시비 60%, 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약 158척에 구명뗏목의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용덕)는 지난 9일 삼학동내 복지사각지대 독거 중장년층 대상을 발굴해 말반찬 배달을 시작했다.

## 군산시 '희망찬 마음찬 반찬배달' 호응

### 삼학동 독거 중장년층 대상

삼학동이 독거 중장년층에게 균형잡힌 식사와 주기적인 안부확인을 위해 희망찬 마음찬 반찬배달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용덕)는 지난 9일 삼학동관 내 복지사각지대 독거 중장년층 대상을 발굴해 말반찬 배달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희망찬 마음찬 반찬배달사업은 저소득 독거 중장년층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총 10명에게 9월부터 연말까지 2주 1회씩 말반찬과 국을 전달한다.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용덕 민간위원장은 "복지발굴대상에서 소외되는 독거 중장년층에게 말반찬과 함께 이웃의 온정을 배달하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현중 삼학동장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홀몸 중장년 가구에게 정기적인 말반찬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안부 확인 및 고독사를 방지해 행복한 삼학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마음찬 반찬배달은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고독사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요즘 이웃을 돌아보는 관심을 가지고 위기가구를 예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가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및 노후된 장비 교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농민 공익수당 69억원 '다리로움'으로 지급

### 익산시, 추석 전 지급 완료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 69억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일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리로움'으로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까지 신

청을 받아 최종 대상자로 1만1,572 농가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차로 다리로움 카드 소지자 6,300여명에게는 11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지급이 완료됐다. 이 밖에도 시는 다리로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5,300여명에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4일부터 추석 전까지 기프트카드를 배부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익산 지역 외 경작지는 영농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전원 '음성'

익산시가 코로나19 10번째(전북 95번) 확진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11일 10번(전북 95번) 확진자가 병원 입원 중 접촉한 직원 19

명을 포함해 가족 지인 등 접촉자 38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이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밀접하게 접촉한 29명은 자가격리에 돌입한 상태이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1:1 모니터링, 자가격리 이탈감시, 불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역감염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번째 확진자는 지난 8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원광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가 방문한 원광대학교병원은 철저한 소독, 환자 분리, 마스크 착용으로 일반인과 방문환자에 대한 감염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원광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1억 지원

### 대학 협력사 직원자녀 등

원광대학교 총장 박명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계사정 악화로 학업이 어렵거나, 대학 협력사 직원자녀 등 원광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계 곤란 재학생과 환경미화원, 운전원, 후생복지매장, 경비원, 조리사로 대학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자녀 중 2학기 등록을 마친 학부 재학생이며, 오는 10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장학금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광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이 겪은 학업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교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갑작스러운 가계 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 및 사기를 증진하고, 협력사 직원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추가 장학금 지원을 계획했다.

양기근 학생복지처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속하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1학기 영업을 제대로 못 한 교내 매장의 임대료를 40% 감액해 환불하고, 미운행한 시외통학버스 용역비 일부를 보전하는 등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져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